



2013. 7. 24 (수) 조간 (온라인 7. 25.)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공정경제팀 김현수 연구원 (02-731-2431)

국민경제자문회의 - 중소기업연구원 공동세미나 -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 제조업의 재발견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24.(수),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 제조업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동 세미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존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 중소 제조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 제1세션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서강대학교 현대원 교수는 창조경제가 전통 제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현대원 교수는 “제조업과 ICT 및 과학기술과의 융합은 제조업 3.0 시대를 열게 해줄 것이며 3D프린터와 같은 기술혁명으로 생각이 곧 창조로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됨에 따라 제조업이 창조경제에서 변화가 가장 큰 산업분야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그리고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도전정신과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소비자를 생산의 파트너로 여기는 인식변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2세션 ‘중소 제조기업의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중 연구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은 적정 판로 확보, 적정 납품단가 보장, 핵심기술 확보가 중요한 당면과제이며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 확보,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및 업계 스스로의 경쟁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중소제조업의 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모바일, 전자 등 선도적 위치에 있는 제조업 기반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과학기술 및 ICT와의 융합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 인력, 기술, 경영 등의 4대 생산요소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세중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 등 공정거래 정착, 공동기술개발, 해외 동반진출 등의 가치창출형 동반성장,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는 상생의 기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를 위해서는 “ICT와의 융합을 통해 Global Value Chain에 합류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군의 집중 육성, FTA를 활용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 및 단계별 수출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마지막 세션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 나경환 원장이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나경환 원장은 “중소제조기업이 지난 5년간 고용창출 증가분의 93%를 기여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격차는 심화되고 있고 수출액에서도 중소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 특히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및 R&D투자가 상대적으로 낮고 관련 인력, 장비,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 나경환 원장은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시장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의 집중지원과 지속적인 상시지원이 필요하며 기술혁신 관련 애로사항을 기술력, 인력, 정보력, 자금력, 수출력 부족의 5가지로 유형화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개방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나경환 원장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R&D에서 중소기업 관련 R&D 비중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 수요를 적시에 대응하고 상시지원 가능한 예산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선도형 R&D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정책국장은 “스위스나 일본의 경우 전통 제조업이 국가적 이미지와 결합하여 명품산업으로 전환되어 지역산업을 선도하고 있듯이 우리의 전통 제조업도 부품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명품산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도 ICT와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환시켜야 하며 창조경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특히 “기술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해줄 중계기관의 부재를 중소기업들이 아쉬워하고 있으므로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산업과 기술의 융합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갈등을 해소해야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진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은 “현재 제조업의 성장률, 고용 유발효과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창의적 융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중소 제조업체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업 내부적으로는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출연(연) 등의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및 첨단기술 융합 지원을 통한 창조제품 개발 촉진을 추진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기업 외부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제품 공공조달 확대 및 원스톱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의 창조제품의 판로 확보 및 불공정거래 근절,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등의 대중소 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시장·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소 제조업의 글로벌화 역량지원,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대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마련의 일환으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대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 원자재 사급제도의 확대 실시 및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칭)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세제, 금융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지원 실시를 제안하였다.

- 그리고 “중소 제조업체의 사기 양양 및 양질의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중소기업pool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확보 및 기업가정신 강화프로그램을 대학 등과 연계하여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그에 대해 항상 정책적 대응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라고 밝혔다.

-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새로운 정책방안의 제시보다는 그동안의 정책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할 시기이며, 그동안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면 중소기업 지원의 성과평가부터 시작되어야 했지만 항상 새로운 지원방안의 제시로 일관되어 왔었다”라고 말했다.

- 그리고 “창조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기업들이 지원대상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를 위해 “지원기관은 잠재력 있는 대상업체들을 현장에서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과 노하우의 축적이 필요하고 지원기관의 발굴 관련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는 지원 이전, 이후의 성과 개선을 나타내는 측정지표 및 지원기관 간 경쟁을 통해 발굴 성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고 제언하였다.

○ (주)광명전기의 이재광 대표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신기술로 무장한 신생기업 뿐만 아니라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운 전통 기업도 필요하며 이들 기업들이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건전하게 발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그리고 “앞으로 ICT 또는 과학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제조업 3.0시대가 도래하고 디자인,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중소기업계도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4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사항 중 물량확보가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